

# 사우디전 19년 무승 징크스 깼다



20일 새벽 (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박주영이 두번째 골을 넣은 후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32분 이근호가 첫 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7회 연속 월드컵행 ‘파란불’

## 이근호 역시 ‘해결사’

### ■ 월드컵축구 2차 최종예선

이근호·박주영 골...2-0 승

2승1무...B조 선두 유지

허정무호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얹힌 지긋지긋한 ‘19년 무승 징크스’에 마침표를 찍고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향한 대장정에 큰 힘을 얻었다.

한국은 20일 새벽(한국시간) 사우디 리야드 킹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32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도움을 받은 이근호(대구)의 결승골과 후반 종료 직전 터진 박주영(AS 모나코)의 추가골을 앞세워 2-0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2승1무(승점 7)로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1부3패·승점 1)과 1-1 무승부를 거둔 이란(1승2무·승점 5)을 앞서 B조 1위를 유지했다.

특히 대표팀은 1989년 이탈리아월드컵 예선에서 2-0 승리를 거둔 이후 무려 19년간 사우디와 6경기를 치르면서 3부3패에 그친 부진을 갚고, 허정무 감독은 지난 2000년 아시안컵에서 나세르 알 조하르 감독과 만나 1-2로 졌던 패배도 양갈음했다.



한국은 전반 5분 사우디의 모하메드 알 살후브가 차올린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칼레드 아지즈에게 헤딩슛을 허용했지만 골대 오른쪽을 지킨 이영표(도르트문트)가 발로 막아냈다. 순간 튀어나온 볼을 파이잘 빈 술타이 재차 슛을 때렸고, 이번에도 이영표가 온몸으로 볼을 막아내면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벗어났다.

한국은 전반 16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 2명을 개인기로 따돌리다 얻어낸 프리킥을 본인이 직접 찼으나 골키퍼 정민을 향했다. 박지성은 전반 26분에도 왼쪽 측면을 뚫고 크로스를 올렸고, 정성훈(부산)

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쪽 슛을 날리게 골키퍼 가슴에 안기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허정무호에 행운이 온 것은 후반 12분. 역습에 나선 사우디의 스트라이커 하자지가 이운재와 독대하는 순간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내줄뻔했지만 주심이 하자지의 시뮬레이션 액션을 선언, 경고누적에 따른 퇴장을 명령하면서 수적 우위 상황을 맞았다.

한국은 후반 32분 이영표가 왼쪽 측면에서 내준 크로스를 박지성이 잡아 골 지역 오른쪽 사각지역 부근에서 반대쪽으로 거의 슛이나 다름없는 볼을 올렸고, 이근호가 침착하게 결승골을 만들면서 승기를 잡았다.

수적 우위에서 공세를 이어가나 한국은 교체투입된 박주영이 후반 46분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강하게 오른쪽 슛으로 감아 찬 볼이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골대 오른쪽 구석에 꽂히면서 2-0 완승을 완성했다.

최종예선 A조에서는 호주(3승·승점 9)가 바레인(1무2패·승점 1)을 1-0으로 꺾고 3연승으로 조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일본(2승1무·승점 7)은 카타르(1승1무2패·승점 4)를 3-0으로 완파하고 조 2위를 지켰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전을 2-0 승리로 장식하며 올해 A매치 일정을 마감하고 동계 휴식기에 들어가는 대표팀은 내년 2월11일 열리는 이란과 월드컵 최종예선 4차전 원정을 앞두고 다시 소집돼 훈련을 시작한다.

허정무호는 이후 내년 4월1일 북한과 홈경기, 6월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정경기, 같은 달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홈경기, 이어 같은 달 17일 이란과 홈경기, 최종예선 레이스를 마감한다.

/연합뉴스

### 뛰어난 골감각...선제골

허정무호의 간판 공격수 이근호(23·대구)가 해결사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해냈다.

이근호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3차전에서 귀중한 선제골을 터뜨려 2-0 승리를 주도했다.

정성훈(부산)과 투톱으로 선발 출전한 이근호는 후반 32분 박지성의 크로스를 문전에서 슈팅으로 연결, 상대 골망을 출렁였다. 골 지역 왼쪽에서 박지성의 빠른 패스를 오른쪽으로 받은 이근호가 넘어지면서도 침착하게 날린 슈팅에 상대 골키퍼는 속수무책이었다. 한국이 19년 넘게 ‘무승 징크스’ 시달렸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이근호가 허정무호의 해결사로서 본색을 어김없이 보여준 장면이었다.

/연합뉴스

## 이영표 ‘A매치 100회’

### 역대 7번째 센추리클럽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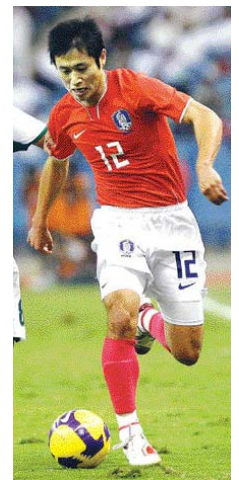
이영표(31·도르트문트)가 A매치 100회 출전 선수를 뜻하는 센추리클럽 회원에 이름을 올린 경기에서 수비수로 맹활약했다.

이영표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로 나와 A매치 100회 출전을 달성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에서 99번째 A매치에 출장한 이영표는 지난 15일 카타르와 평가전에 불참했다가 마침내 대기록을 작성했다.

이영표는 100번째 A매치에 출장해 차범근(121경기)과 홍명보(135경기), 황선홍(103경기), 유상철(122경기), 김태영(105경기), 이운재(109경기)에 이어 역대 7번째로 센추리클럽에 가입했다.

센추리클럽 회원이 된 경기에서 팀도 2-0 완승을 거두 기쁨은 두 배였다. 이영표는



다.

이영표는 후반 선제골의 물꼬를 트는 역할까지 해냈다. 후반 32분 이영표가 왼쪽 측면에서 자로 켜듯 한 크로스가 박지성에게 연결됐고 박지성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다시 패스한 볼을 이근호가 오른쪽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다.

/연합뉴스

## 허정무 감독 “세대교체 성공, 가장 큰 소득”

“대표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더 일찍 해야 했을 세대교체가 (늦게나마) 성과를 거둔 게 가장 큰 소득이다.”

허정무 감독이 첫손에 꼽는 성과는 성공적인 세대교체다. 허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16차례(8승7무1패)의 A매치에서 51명이 거쳐 갔고 이중 무려 21명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허 감독은 “베테랑과 젊은 선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희망이 생겼고 잘해준다면 대표팀이 강해지는 것이다. 젊고 새로운 선수들이 올라와야 경쟁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89년 10월25일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 2-0 승리 이후 19년 동안 이겨보지 못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지독한 ‘무승 징크스’를 깬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잘해줘 대견스럽고 고맙다. 사우디를 분석하고 준비했고 최상의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연합뉴스



이근호가 첫 골을 넣은 후 최군 쌍둥이 할아버지가 된 허정무 감독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